

## 생명의 경제를 건설하는 여성들

### 아테나 페탈타 세계교회

#### 협의회

#### 생명의 경제: 시장 너머로

경제는 종종 금융 투자, 생산, 상품과 서비스의 매매 등 시장 내에서 일어나는 일로 축소되곤 하지만, 사실 그 범위는 훨씬 더 넓습니다. 생명의 경제는 인간의 복지를 지탱하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 돌봄의 네트워크, 생명을 지탱하는 자연계, 공동체가 번성하게 하는 사회적·생태적 유대. 이는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제공하고(또는 제공해야 하며) "충만한 삶"을 가능케 하는 경제다. 시장과 돈이라는 좁은 틀보다 훨씬 풍부하고 깊으며 무한히 더 경이롭다.

#### 팬데믹이 남긴 교훈: 돌봄의 가시성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제 먼 기억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이 거의 초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남긴 가장 오래 지속될 교훈 중 하나는 돌봄 경제의 존재를 깨달은 점입니다. 즉, 다른 모든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노동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봉쇄 조치와 자택 대피 명령이 세계 시장 경제를 멈추게 했을 때, 청소, 요리, 육아, 병자와 노인 돌봄과 같은 돌봄 경제가 거의 광란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화되었다. 공장이 멈추고 사무실이 문을 닫는 동안 가정은 삶의 중심이 되었고, 돌봄 노동은 사회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이 노동은 여전히 대부분 보이지 않고 무급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무급 돌봄 노동을 세 배나 더 수행합니다(ILO 2018).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식사 준비, 물 길어오기, 장작 모으기, 필수 일상 업무 수행에 4배 이상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예를 들어 스리랑카에서는 여성과 소녀의 87%가 가사 및 돌봄 노동을 하는 반면, 남성 및 소년은 59.7%에 불과하다(Jayasekera 2021).

여성이 정식으로 고용된 경우에도,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여전히 가사 및 돌봄 업무의 대부분을 떠맡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임금) 임금 노동, (무급) 가사 노동, (무급) 감정 노동이라는 이중 또는 삼중 부담이 발생하며, 이는 성 불평등과 피로를 심화시킵니다.

#### 삶을 지탱하는 것의 가치

돌봄 노동은 매일 노동자, 가족, 공동체를 지탱합니다. 이는 생명의 경제(Economy of Life)의 초석이며, 없이는 시장 경제가 붕괴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경제학자들은 이를 거의 인정하거나 측정하지 않습니다. 옥스팜(2020)은 여성의 무급 돌봄 노동이 세계 경제에 연간 10조 8천억 달러를 기여한다고 보수적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세계 최대 기업들의 총 매출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페미니스트 사상은 돌봄 노동이 공공 정책, 사회적 인프라, 여성과 남성 간, 가정과 국가 및 민간 부문 간의 책임 분담을 통한 공정한 재분배를 통해 인정받고 가치 있게 여겨지며 지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직 그때에야 사회는 진정한 회복탄력성과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다.

교회들은 이미 90년대 초반 이 진실을 인식하고, 여성들의 인정받지 못하고 보상이 없는 사회적 재생산 노동을 중대한 글로벌 경제 문제로 규정했다. 세계교회협의회(WCC)의 '기독교 신앙과 오늘날 세계 경제' 연구는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비록 이러한 노동은 무급이지만, 사회의 사회적 구조를 유지하고 공식 경제 영역의 많은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기 때문에 경제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요소이다*" (WCC, 1992:25).

## 생태학의 사각지대

기존 경제학이 돌봄 노동을 보지 못한다면, 생태학 역시 마찬가지로 보지 못한다. 놀랍지만 사실이다! 경제(economy)라는 단어 자체가 생태(ecology)와 같은 어근을 공유한다는 점은 이미 언급된 바 있다. '집' 또는 '가구'를 의미하는 '오이코스(oikos)'가 그것이다. 둘 다 우리가 공동의 집을 어떻게 공급하고, 유지하며, 공유하는지에 관한 문제임에도, 주류 경제학은 자연 세계가 무한하고 스스로 회복되는 것처럼 행동한다.

여성들과 자연은 지배적 경제 체제 내에서 유사하게 취급되어 왔다—보이지 않고, 평가절하되며, 생산을 위해 '자원'으로 착취당해 왔다. 경제학자 줄리 넬슨(Julie Nelson, 1995)이 지적했듯이:

*"생산은 오직 자본과 노동이라는 요소만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된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 노인 과 병자를 돌보는 일—전통적으로 여성의 책임이었던 것들—은 자연과 마찬가지로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사소한 일들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즉 '여성의 돌봄 노동'과 자연이 모두 부차적이며 '스스로 돌보게 내버려둔다'는 인식—은 사회적 소진뿐만 아니라 기후와 생태계의 붕괴 직전까지 이르게 했다. 여성들이 수행하는 일상적 돌봄과 공급 활동의 저평가 및 부정, 그리고 생물권 과정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의존성이 오늘날 위기의 근원이다. 생명의 경제를 구축하려면 돌봄의 책임과 인간과 생태계 간의 상호의존성을 회복하고 확증해야 한다.

## 페미니스트 경제학: 권력 폭로와 가치 회복

생명 경제를 구축하는 데 페미니스트 관점은 필수적이다. 페미니스트 경제 사상은 전통적 경제 사상에 내재된 가정과 권력 구조에 도전한다. 주류 경제학은 '생산 요소'와 '경제 질서'를 고정적이고 중립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 권력, 특권, 불평등이 경제적 결과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무시한다. 현실에서 권력은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사이, 자본과 노동 사이, 남성과 여성 사이 등 어디에서나 작동한다. 식민지 역사와 사회적 불평등에 뿌리내린 이러한 역학은 누가 채권자이고 누가 채무자인지, 누가 경제 성장과 세금 감면으로 이익을 보고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지, 심지어 누가 살고 누가 죽는지를 결정한다. 아크라 고백은 이러한 권력 역학을 제국주의로 명명한다. 페미니스트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힘의 작용을 드러내며, 경제학과 경제가 효율성과 이익뿐만 아니라 정의, 윤리, 돌봄의 문제와도 씨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페미니스트 분석은 또한 불평등이 결코 단일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성별은 계급, 인종, 카스트, 연령, 성적 지향과 교차하며 사람들의 실제 경험과 경제적 기회를 형성합니다. 권력은 이러한 범주들 사이와 내부에서 작동하므로, 정의에 대한 어떤 분석도 교차적이어야 합니다.

## 윤리와 주체성

페미니스트 경제 사상의 윤리적 차원 역시 동등하게 중요하다. 이 사상은 돌봄, 형평성, 지속가능성, 존엄성 같은 도덕적 가치를 분석과 정책 수립, 공동체 행동의 핵심에 둔다. 페미니스트들에게 핵심 질문은 단순히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길 것인가? 모두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경제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이다.

## 신앙, 정의, 그리고 생명의 경제

교회와 신앙 공동체는 이러한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신앙 전통은 경제가 단순한 기술적 체계가 아니라 깊이 도덕적이고 관계적임을 상기시킵니다. 아크라 신앙고백이 강조하듯, 근본적인 나눔과 창조 세계에 대한 돌봄에 기반한 하나님의 경제는 *모든 이를 위한 풍성한 생명을* 꿈꿉니다.

우리의 성경적·신학적 자원은 정의, 화해, 일치의 이해를 인간과 비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로 확장하라고 도전합니다. 따라서 생명의 경제를 말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착취하기보다 양육하고, 고갈시키기보다 회복하는 체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 미래를 재구상하기: 도넛과 생명의 그물

경제학자 케이트 로워스의 도넛 경제학 개념과 성장 이후/탈성장 접근법은 이 비전을 강력하게 담아냅니다. 여기서 경제 활동의 목표는 "지구의 한계를 넘지 않으면서 모든 이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번영하기 위해 반드시 성장해야 하는 경제 대신, 성장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를 번영하게 하는 경제가 필요합니다.

원주민 공동체는 상호 의존적이고 연결된 관계의 관점에서 경제를 재구상합니다. 이러한 재구상은 경제를 사회와 살아있는 지구 안에 자리매김하며, 우리가 단순한 노동자, 소비자, 자본 소유자 이상임을 상기시킵니다.

— 우리는 서로와 우리의 공동체를 돌보는 존재임을 상기시킵니다.

##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 성별, 경제적, 생태적 정의

기후 정의 행동을 위한 에큐메니컬 10년과 새로운 국제 금융·경제 체제를 위한 공동 에큐메니컬 옹호 활동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여성 지위 위원회에서 성폭력을 다루든, IMF와 세계은행에서 채무 탕감과 세금 정의를 요구하든, 유엔 기후 회의에서 배상금과 기후 재정을 요구하든—우리는 정의의 떼려야 뗄 수 없는 세 가지 차원, 즉 성별 정의, 경제적 정의, 생태적 정의를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이들은 분리된 투쟁이 아니라 하나의 도덕적 직물을 이루는 얽힌 실타래입니다.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에서처럼, 이들은 어디서나, 언제나, 모든 공간에서 함께 추구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없이는 다른 하나도 달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는 신앙에 뿌리내리면서도 전략적입니다: 돌봄을 존중하고, 성별 및 기타 불평등을 해체하며, 창조를 회복하고, 모든 이에게 충만한 생명을 가져오는 '생명의 경제'를 살아가고, 건설하며, 증언하는 것입니다.